

다시 찾고 싶은 전북 만든다

전주가맥축제 성황리에 개막... 지역경제 활성화·화합의 장 기대

우리지역의 독특한 음식문화인 가맥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2019 전주가맥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가맥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 하이트진로 등이 특별 후원해 열린 제5회 전주가맥축제 개막식이 8일 밤 8시 전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개막선언과 가맥 건배제의 등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일간의 축제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당일 만들어서 바로 그날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맥주 제공

을 위한 맥주연못 조성, 20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풍성한 가맥안주와 함께 전북 투어패스 홍보·제로페이 홍보 이벤트, 가맥 어울마당(장기 자랑 등), 테라타임, 병따기의 달인, 가맥클럽파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도 관계자는 "가맥축제는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전북만의 독특한 가맥문화를 널리 알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관광마케팅 축제의 일환으로 먹고 마시는 형태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축제 수익금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향토기업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즘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내여행을 하며, 힘을 합치면 경제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그 첫걸음이 오늘처럼 향토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기자

군산 수상레저스포츠 대회 체험거리 '다채'

12~15일 선착순 400여명 대상 사전 체험행사 실시
17~18일 전국 16개 선수단들, 최고 선수 선발 열전
프로선수 시연·케이بل 니보드체험·패들보드 등

2020군산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 전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수상레저스포츠 대회가 군산호수(옥산저수지)에서 프로선수 케이블웨이크보드 시연, 케이بل 니보드체험, 패들보드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전 체험행사는 오는 12일~15일까지 선착순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분야 선

수단들이 참가해 대한민국 최고 선수를 선발하는 열전에 돌입한다. 본 대회에서는 2019년도 국가대표로 선출된 군산 출신 국가대표 여자 웨이크보드 부분 김수연 선수가 출전한다.

김수연 선수는 훈련장소와 경기장이 없는 수상스키 불모지인 전북에서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웨이크보드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대표 선발은 지난 6월 19일 전

남 영광에서 개최된 전국남여종목별 오픈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 1차전과 7월 7일 제33회 전국남여종목 수상스키·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 2차전 경기실적을 합산해 최종 선발된다.

한편, 이번 국가대표 선발로 인해 전라북도가 수상스키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2019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케이بل보드 대회 겸 제7회 코리아컵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20 해양스포츠제전을 전국 수상인들에게 알리고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수상스키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도가 올해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합천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등 4개 기업을 선정하고, 8일 도청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이들 기업에게 선정서를 전달했다.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도 강소기업으로 '우뚛'

전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선정서 전달식 가저

전북도는 올해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합천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등 4개 기업을 선정하고, 8일 도청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이들 기업에게 선정서를 전달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강소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31개 기업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회계검토, 서류평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8일 대면

심사 평가를 통해 합천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주)에담공예, (사)글로벌투게더집계, (사)JB영상문화연구원 등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5000~6000만원을 지원해 제품 기술개발, 상품 생산과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며, 기업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전달식에서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표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아가 하며,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여 다른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 대표들은 "성장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국 최초 내수면 갑각류 특화 연구시설 건립 추진

전북도,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 선정

전북도가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UP 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총사업비 96억원(국비 47억)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기르는 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청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전국 내수면 양식을 이끌고 있는 전북도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선정된 사업을 자세히 보면 우선 전

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내에 총사업비 90억(국비 45, 도비 45)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2020~2022년)해 토하, 큰장거미새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갑각류의 시험연구와 우수종자 생산을 통해 양식어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여, 내수면 갑각류 양식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공모에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2019년 2월 졸업, 무주군출생) 졸업생이 총사업비 6억(국비 1.8, 지방비 1.8, 자부담 2.4)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2020년)로 공모에 선정되었다.

고향인 참정무주에 딱 맞는 송어(맑고 찬물에 서식)를 환경친화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양식수 처리를 고도화하고 여기에 자동 사료공급기와 양식장 환경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더해 친환경적이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양식장을 신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수면 양식어가의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어 향후 도내 내수면 양식장의 스마트화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우리도의 내수면 양식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수면 양식분야의 새로운 시험연구를 통해 양식어가의 소득증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업이 청년창업의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여성인재 육성 확대 추진... 35사단 여성 중간관리자 대상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함께 8일 35사단에서 35사단 여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여성커리어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인재 아카데미'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와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전라북도 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지역거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올해로 6년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특수지 공무원 등 조직 내 중간관리자, 지역사회리더, 취·창업준비 중인

30세 이하 청년으로 각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올해는 7회 2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본 교육과정 수료 후, 역량 있는 여성 리더들이 도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여성을 위한 의결절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 DB에 등재한 후, 각종 위원회 참여를 지원한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핵심리더로 성장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내 여성인재의 성장을 위한 역

량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254-38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기자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 야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목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저지서 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업,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스피치최고지도사·스피치(긴장)해소수업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스피치최고지도사·스피치(긴장)해소수업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기초+고급)이강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평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수업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수업, 스피치 최고지도사수업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수업, 스피치(긴장)해소수업, 최고지도사수업 웃음치료를	전주, 원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급력 스피치기법수업, 스피치 긴장해소수업	전주, 임실, 원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과정(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